

# 진흥회 활동

## 제 1회 부산전자전람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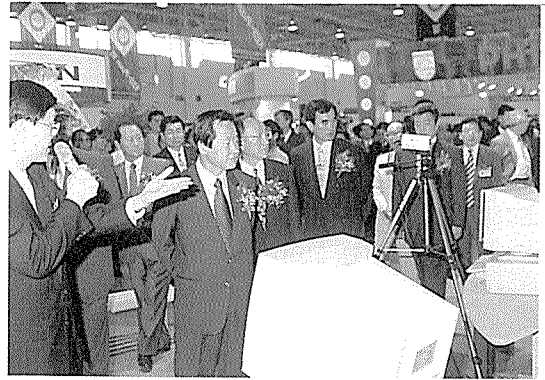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부산무역전시관에서 부산전자전람회를 대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본회 구자학 회장, 통상산업부 정해주 차관보, 부산광역시 부시장, 부산광역시 정순택 교육감, 부산일보 정한상 사장, 전자신문사 김상영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전자산업인, 일반 관람객이 대거 참관. 국내 전자산업의 현 위치를 지방 시민들에게 한 눈에 펼쳐 보여 줌으로써 전자산업의 풍요로운 한 마당이 되었다.

특히 전자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산지역 공과대학생,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자산업의 산 교육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영국 등 총 6개국 50개사의 우수전자업체들이 첨단 전자·정보산업의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10만 여명의 관람객이 우리



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상을 보기위해 연일 대성황을 이루었었다.

이번 부산전람회는 부산을 중심으로 인근 마산, 창원, 울산 등 영남지역의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소비자 및 학생들이 대거 몰려 부산에서의 최대 전자정보기기 전문전시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81 Page 참조〉

## 민·관 합동 통상전략포럼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일과 3일 양일간 수안보 상록 호텔에서 민·관 합동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등 정부측에서 통상부 박인구 전자기기 과장, 통상부 김종갑 통상과장, 재경원 오갑원 과장, 외무부 홍성화 서기관, 무역위원회 김수부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측에서는 삼성전자 최군식이사, 오리온전기 문의명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려대 박노형 교수가 WTO 체제의 발전전망과 아국산업의 당면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했으며 WTO체제하에서 권리와 의무, 그 규범의 결과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집단은 기업이지만 WTO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정부이므로 미국의 301조와 같은 법규가 한국에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분쟁해결 제도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분쟁에 EU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분쟁에 참여해 분쟁해결의 경험을 살리는 시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분야별 주제발표에서는 본회 이우중 상무가 전자분야 통상대응활동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통산부 이재훈 과장이 미국 통상환경, 외무부 홍성화 서기관이 EU 통상환경, 재경원 오갑원 과장이 지역경제와 APEC, 무역위원회 김수부 서기관이 국내시장보호, 통산부 박인구 전자기기 과장이 전자산업의 통상정책, 통산부 김종갑 통상과장이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민·관 모두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WTO 분쟁의 적극 활용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업계간 통상전문가 및 정부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 업계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수입선 다변화로써 이제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전자산업에 의해 미국과 EU 산업이 위축되었듯이 한국 역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산부는 '통상정책' 보다는 '통상마찰 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업계의 활발한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무부는 EU와의 통상회담때 한국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많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음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업계는 정부에 기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EU 집행위원 및 소비자 단체, 업계인들과의 관계를 다져나가고 WTO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제 2차 한·중 HDTV 분과위원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2차 한·중 HDTV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HDTV 기술 협력과 관련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통상산업부 서사현 생활공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회 이상원 상근 부회장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오



소롱 전자공업부 종합기획 사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제2차 한·중 HDTV 분과위에서는 한·중 고선명TV(HDTV) 산업협력 방안으로 공통규격의 제정과 시스템 및 부품기술의 분담개발·공동생산체계 구축 등 3단계로 이어지는 양국간 공동개발 계획안을 마련, 중점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양국간 HDTV 공동개발 원칙을 합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 HDTV 공동개발 계획」을 제의하고 사업추진 일정과 협력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이 공동개발 계획안은 1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 상반기까지 공통규격의 시스템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공동으로 마련한 후 97년 하반기부터 2002년 HDTV 시스템과 부품 등 핵심기술을 분담개발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선 필드테스트와 공동생산 체제의 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선 또 공동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중 양측이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오는 9월 말까지 한·중 HDTV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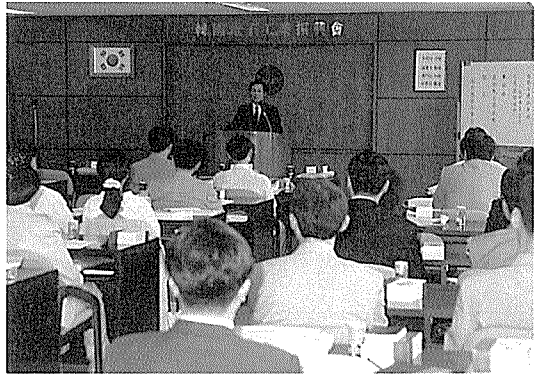
중국측은 그러나 우리측이 제안한 이같은 공동개발계획에 대해 공통규격 제정부분은 협력을 시도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논의 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동개발에 착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가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한 한국측은 공통규격이 없는 HDTV 공동개발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중국측에 주지시키고, 만약 공통규격의 제정작업을 공동개발 계획에서 제외시킬 경우 한국은 중국의 HDTV 개발에 대해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 분야의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통규격의 제정문제는 양국이 HDTV 분야에서 제3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때 함께 참여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서울대 뉴미디어연구소와 중국 청화대간 정보교류 및 자료교환·연구원교류 등을 위한 학계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

## 95 전자·전기공업통계 담당자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마산, 부산, 서울, 경기 지역 전자·전기공업 통계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계담당자 간담회는 본회가 정부 지정 통계 기관으로서 전자전기 공업 통계를 조사하여 정부 및 업계에 주요 경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온 실무자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조사를 위해 통계담당자의 인식 및 업무 효율제고를 도모코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이우중 상무의 통계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계자료 제출업체 우수업체 담당자를 표창했다.

다음은 이날 수상자 명단이다.

모토로라코리아(주)	업 무 과	과 장	황동규
대성전기공업(주)	기 획 실	직 원	박향식
동양폴리에스터(주)	자기영업부	직 원	복준영
대우케리어(주)	재무기획부	대 리	이수봉
동양나이론(주)	전자관리부	직 원	김부묵
새한미디어(주)	영 업 팀	직 원	안중환
(주)신우음향	영 업 과	직 원	김진희
한국TDK(주)	업 무 과	계 장	권성태
한국트라콘(주)	무 역 과	직 원	황선미
전한실업(주)	총 무 과	대 리	김완수
(주)태평양금속	총 무 과	주 임	윤정기
한영전자(주)	업 무 부	차 장	정선용
(주)오성전자	경 리 과	주 임	조영진
한국컴퓨터(주)	생산관리과	대 리	김태식
대진전자공업(주)	품질관리부	대 리	장병호
(주)한미	품질관리부	실 장	김유구
한국동경전자(주)	무 역 과	계 장	박태효
한국중천전화산업(주)	관 리 부	계 장	박상동
문화통신공업(주)	총 무 과	과 장	서정수
제일전기공업	경 리 과	대 리	한설운

전자부품 생산액은 170억 달러로 세계 생산액(2,196억 달러)의 일본(774억 달러), 미국(595억 달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산업용 전자기기 생산액은 그러나 93억 달러로 세계 생산액(4,878억 달러)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쟁국 및 후발개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 10위를 차지, 향후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매우 크고 기술집약도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년도 세계 전자시장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7,52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94년 부문별 전자산업 생산액

(단위: 억달러)

구 분	총생산액	산업용기기	가정용기기	전자부품
세계전자산업(A)	7,811 (100%)	4,878 (62%)	737 (9%)	2,196 (29%)
한국전자산업(B)	334 (100%)	93 (28%)	71 (21%)	170 (51%)
B/A(%)	4.3 (4위)	1.9 (10위)	9.6 (2위)	7.7 (3위)
미 국	2,408	1,747	66	595
일 본	2,151	1,103	274	774
독 일	437	308	31	98
한 국	334	93	71	170
영 국	280	210	19	51
프 랑 스	279	214	16	49
싱 가 포 르	216	159	23	79
대 만	211	137	11	63
말 레 이 시 아	201	60	57	84
이 탈 리 아	190	154	8	28

#### '94년 한국전자산업 생산액 세계 4위 도약

본회가 영국에서 발행되는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5, Vol. 1, II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334억 달러로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해 93년 5위에서 한단계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산은 세계 전자산업 생산액 7,811억 달러의 4.3%를 차지함으로써 93년의 4.0%에 비해 0.3%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산업용 전자기기 생산액은 지난해 대만·싱가포르·브라질에 비해서도 뒤진 93억 달러에 그쳐 세계 10위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본회가 지난해 가정용 전자기기 생산액(전기 제품 제외)은 71억 달러로 세계 생산액(737억 달러)의 9.6%로 일본의 274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제8회 전자공업인 노사화합 친선등산대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0일~6월 11일 양일간 전자공업인의 유대강화와 노사화합을 통한 명량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제8회 전자공업인 노사화합 친선 등산대회가 원주 치악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회가 주최하고 통상산업부, 전자신문사,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 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후원한 이날 대회는 삼성전자 등 회원사 250여명이 참가, 명실공히 전자공업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정착되었다.

이날 등산대회에서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해온 전자공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오늘 전자공업 산악인으로써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승리의 주역들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통상산업부 장관상) : 삼영전자공업
- 우수상(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상) : 삼성전자(가전), 대우전자, 삼영전자공업

- 준우승 : 효성컴퓨터, 로음코리아, 세진전자
- 장려상 : 삼보컴퓨터, 삼성전자(정보), 삼성전자(가전)
- 감투상 : 현대전자,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우전자
- 노사화합상 : 세진전자, LG반도체, 폴든코넥터산업
- 특별상 : • 전자신문사 사장상  
동방전자산업
- 특별상 :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상  
전자신문사
- 특별상 :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상  
세모
- 특별상 :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상  
한국후지쯔
- 특별상 : •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상  
태일정밀

## 깨끗한 선거풍토 정치안정 경제발전